'관세 효과' 넘어선다… K-철강, 기술·친환경으로 승부수

포스코·현대제철, 체질개선 박차

AI·수소제철로 고부가 전략 가속
中 저가공세 뚫고 판재류 수익 방어
원가 안정에 스마트제철 투자 확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열연·후판 반덤핑 관세 효과와 원자재 가격 하락, 판재류 선방에 힘입어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양사는 인도·북미에서 현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공정 자동화·수소환원제철 등 기술혁신과 자동차·전기강판 중심의 고부가 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대제철 전경. /현대제철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등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3분기 철강 부문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4380억 원) 대비 36% 증가한 6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현대제철은 매출 5조8000억 원, 영업이익 1131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1%, 119%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에프앤가이드는 정부의 저가 철강제품 수입 규제가 실적 개선의 핵심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중국산 중후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27.91~38.02%)를 부과한 뒤 8월 최종 판정에서 최대 34.1%를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열연강판도 지난 9월 23일부터 중국산(28.16~33.10%), 일본산(31.58~33.57%)에 잠정 관세가 고시됐다. 실제 중국산 중후판 수입량은 지난 3월 9만1575톤에서 8월 5만0515톤으로 44.8% 줄었고, 열연강판도 고시 직후인 9월 중국산 수입이 전월(13만1520톤) 대비 70%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하락도 실적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제철용 원료탄은 9월 기준 톤당 187달러로 8월 대비 3.1%, 연초 대비 4.6% 떨어졌으며, 철광석도 105달러로 지난해 초보다 약 22% 낮다. 원가 하락 효과로 판재류는 수익성을 방어했다는 평가다.

하반기에는 9월 말부터 부과된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판가 인상 효과가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이 이달 말 철강 구조조정 추가 방안을 발표할 경우 내년부터 공급 과잉 완화도 기대된다.

양사는 개선된 실적 흐름을 기반으로 현지화와 고부가 제품 중심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현지화 전략에 집중한다. 인도에서는 JSW그룹과 일관제철소 공동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으로 부지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 또 현대자동차그룹(현대제철)과 미국 내 합작 철강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전기강판 등 고부가 제품 비중을 늘리고 제강 공정의 자동화와 인공지능(AI) 예측제어를 강화해 스마트팩토리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용 고망간강 등 신소재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내년에는 액화수소용 고강도 강재를, 오는 2028년에는 인바 대체 저가 송전선 소재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자동차강판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 저감 기술을 접목한 제품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고강도·고성형성 등 차세대 모빌리티 핵심 소재인 3세대 초고강도 자동차강판 설비를 구축 완료하고 현재 HMG 등 주요 완성차 고객사 테스트에 착수했다. 철스크랩·직접환원철(DRI)·고로 쇳물을 결합한 '하이큐브(Hy-Cube)' 공법을 적용해 저탄소 자동차강판 상업 생산도 추진하고 있다.

임종호 순천제일대 제철산업과 교수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막기 위해선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고부가 제품 확대, 전기요금 현실화 같은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며 "친환경·고품질 중심으로의 전환이 한국 철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metroseoul.co.kr

K-태양광, '脫중국 밸류체인' 재편 가속

美 PFE 규제 내년 본격화
中 부품 쓰면 세액공제 불가
한화·OCI·현대 등 美행 박차

미국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기업에 세액공제를 중단하는 PFE(금지외국기관) 규정을 본격화하면서 글로벌 태양광 공급망이 '비(非)중국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속속 Non-PFE(비금지외국기관) 공급망 구축에 나서며 미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7월 발효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에 따라 내년부터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금지외국기관(PFE)으로부터 원료나 부품을 공급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PFE는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 특정국과 연계된 기업·기관을 의미한다. 국내 태양광 업계는 근래 공급망 전면 재편에 나서고 있다. 폴리실리콘·웨이퍼 등 상단 공정을 중국 외 지역에 구축하고, 원재료·중간재 전략을 다변화하는 방식이다. 동남아 생산기지와 미국 현지 공장을 병행하는 이원화 체계를 통해 PFE 규정과의 충돌을 피하겠다는 전략이다.

OCI홀딩스 베트남 웨이퍼 공장 조감도. /OCI홀딩스

OCI홀딩스는 베트남 웨이퍼 공장 지분 65%를 확보해 웨이퍼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연 2.7GW 규모의 해당 공장은 이달 말 완공 예정이며, 시운전 후 이르면 내년 초 Non-PFE 웨이퍼를 생산한다. 회사는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 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을 전량 투입해 '폴리실리콘→웨이퍼' 수직계열화를 구축, 미국향 Non-PFE 체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에 잉곳·웨이퍼·셀·모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솔라허브'를 조성 중이다. 완공 시 잉곳·웨이퍼·셀 각 3.3GW, 모듈 8.4GW의 생산능력을 갖춘 북미 최초의 통합 생산단지가 된다. 미국 내 생산으로 세액공제 요건에 정면 대응하며, 폴리실리콘도 Non-PFE 라인을 중심으로 투입한다. 한화큐셀은 지난 2022년 OCI홀딩스와 오는 2034년까지 약 10억5000만 달러(1조4000억 원) 규모의 폴리실리콘 장기 계약을 맺어 상당 부분 수요를 확보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또한 PFE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급망 확대 및 미국 내 생산시설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 업체들이 미국 시장에 쏠리는 배경으로 구조적 제약을 꼽는다. 전기료와 인건비 부담에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며 국내 생산만으로는 단가를 맞추기 어렵고, 정부가 가격 격차를 보전하기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삼성, '앰비언트 AI'로 미래 비전 제시

실리콘밸리서 '테크 포럼' 개최

삼성전자가 글로벌 우수 인재들과의 네트워킹 및 기술 교류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기술 인재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 방향 및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최신 기술 트렌드를 논의하는 '2025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위치한 삼성리서치 아메리카(SRA)에서 진행됐다.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 삼성전자 경영진에는 ▲노태문 DX부문장 직무대행 (사장)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전경훈 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삼성리서치장(사장) ▲이원진 글로벌마케팅실장(사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일상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앰비언트 AI'"로, 각 사업부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AI 비전과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삼성리서치 AI센터장 김대현 부사장은 '자율적 목표 수행을 위한 인공지능(Agentic AI)'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다.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AI를 가장 잘 활용하고 AI로 일하며 성장하는 'AI 드리븐 컴퍼니(Driven Company)'로 도약하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빠르고 과감하게 발굴해 지속 가능한 사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사장은 "도전과 혁신의 DNA를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피벗 역량은 미래 혁신의 원동력"

문혁수 LG이노텍 대표, KAIST 특강

문혁수 LG이노텍 대표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에서 후배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진행했다. 엔지니어 출신 CEO인 문 대표는 이날 피벗(전환)을 통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지난 17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진행한 리더십 특강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는 '피벗' 역량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벗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한 분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영역으로 전문성을 확대하며 개인 또는 조직이 가진 역량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뜻한다.

문 대표는 "기업도 사람도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피벗 할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생존을 좌우한다"며 "LG이노텍도 모바일을 넘어 모빌리티, 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회사의 원천기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영역으로 미래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강에서 문 대표가 지속 강조한 또 다른 키워드는 '가치'다.

그는 "동일한 기술일지라도 고객의 요구로 개발한 기술과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먼저 제안해 개발한 기술의 가치는 확연히 차이 날 수밖에 없다"며 "차별적 고객가치가 곧 우리 기술을 명품으로 만드는 핵심 요소"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 'AI 맞춤보관'으로 김치맛 완성

'디오스 AI 오브제 김치톡톡' 선봬
AI로 사용 패턴 분석해 최적온도 유지

LG전자가 인공지능(AI)으로 '김치 맛은 더 살리고' '구독 케어십 서비스로 위생 관리는 더 강화한' 김치냉장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LG전자는 'LG 디오스 AI 오브제컬렉션 김치톡톡' 신제품(대표 모델명: Z495)을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제품은 LG전자 김치냉장고 중 처음으로 'AI 맞춤보관' 기능을 적용했다. 이 기능은 씽큐 앱으로 포장김치 바코드를 찍으면 입력되는 김치 종류 및 제조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김치 맛을 내도록 온도를 맞춰준다. 또 AI로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해 냉장고 문을 많이 여는 시간에는 냉기 분사를 중단해 성에를 제거하는 '제상동작' 시간을 조절,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LG전자는 김장철을 제외하고는 각 칸을 김치 보관이 아닌 야채·과일이나 쌀·잡곡 보관, 냉동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다양한 식재료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탑재했다.

먼저 냉장고 상층칸을 좌우로 분리하는 다용도 분리벽을 업계 최초로 적용해 각 공간을 김치·냉장·냉동으로 개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장철에는 상층칸 좌우를 모두 김치 보관 모드로 사용하다가, 여름에는 개별 칸을 냉동고나 냉장고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이로써 491리터(L) 대용량을 상칸 좌·우, 중층칸, 하층칸까지 독립된 4개 칸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